

르 꼬르뷔지에의 빌라 내부 공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nterior Space of Le Corbusier's Villas

남경숙*/Nam, Kyung-Sook

Abstract

Le Corbusier planned and began to build space of new architectural expression around 1920s by connecting his theory of architecture of a great influence upon his creation of works with the puristic principles. The objective of this study consists in enquiring into the interior space of Le Corbusier's villa in 1920s and 1930s, especially into villa La Roche-Jeanneret, villa Terrasses, and villa

Savoie. The constituents of the villas introduced new architectural concepts, including geometry, economics, and his new five architectural factors, and there appeared such phenomena as were shown in the paintings of the purist period, such as transparency, contrast, etc. We can see through this study, that Le Corbusier's architectural purpose is the realisation of his architectural and puristic concepts.

I. 서론

I-1. 연구 목적 및 의의

1920년경, 르 꼬르뷔지에(Le Corbusier, 1887-1965)는 자신의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친 그의 건축 원리와 퓨리즘의 원리를 연결시키려고 하였다. 이들은 서로 유사한 원리로서 병행되는 연구의 대상으로 간주되었으며, 이를 통하여 우리는 르 꼬르뷔지에 작품 구상의 근본적인 특성은 종합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 특수한 여러 구조적인 형태의 동시적인 종합.

퓨리스트의 원리는 예술과 건축 작품들은 서로 조화를 이루고 연결되어야 한다는 르 꼬르뷔지에의 의도를 강화시켰는데, 이러한 시도는 20년대의 그의 건축 작품에 영향을 미쳤다. 퓨리즘은 1918년에 오장팡(Ozenfant)과 르 꼬르뷔지에 의한 <큐비즘 이후(Après le cubisme)>라는 출판물과 함께 현대 예술사에 공식적으로 등장하였다. 르 꼬르뷔지에의 순수예술 작품에서 산업디자인과 건축에 이르는 모든 형태에서 그의 논조를 떠나갔는데, 이는 단지 현존하는 모든 형태의 의식적인 정화를 위한 일반 문화이론에 지나지는 것이다. 이 새로운 미학은 1921년 <새로운 정신(L'esprit nouveau)>이라는 그가 출판하는 잡지의 <퓨리즘(Purisme)>이라는 글에 발표한 것으로 정확함, 섬세함 그리고 경제 등의 미적 원리에 해당되는 사항들을 연결시킨 것이다. 1923년에 <건축을 향하여서(Vers une architecture)>라는 책을 발표함으로써 르 꼬르뷔지에의 그의 이론적 생각들을 모았는데, 이 책은 그의 작품에 반영되고 있는 확고한 개념들을 나타내었다. 이는 한편으로는 고전적 형태에서 기능적인 역할을 만족시키려는 필요에서, 다른 한편으로는 지성과 감성을 자극하기 위한 추상적 요소들을 이용하려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르 꼬르뷔지에의 건축적 원리들은 빌라 라 호슈제네헤(La Roche-Jeanneret)에서부터 나타나는데, 여기서는 내부 공간의 구성 요소들이 조직적인 방법으로 전개되어 간다. 1925년부터, 르 꼬르뷔지에의 고급 빌라를 짓는데, 빌라 쿡(Cook, 1926)에서는 <새로운 건축의 5가지 요소>의 그의 이론을 나타내었으며, 이어서 빌라 메이에

(Meyer, 1927), 빌라 테라스(Terrasses, 1927) 그리고, 빌라 사브와(Savoie, 1929-1931)를 파리 외곽 지대에 지었다.

본 연구에서는 르 꼬르뷔지에의 빌라를 연구하고자 한다. 이는 르 꼬르뷔지에의 작품을 분석하고, 해석하려는 의도뿐 만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디자이너에게 사과의 방법을 제시하고, 오늘날 디자인계가 직면하고 있는 디자인 개념과 상황들에 대한 분석, 해석, 비평부재의 문제에 어떠한 시각으로 이들이 조명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일련의 견해를 표명하고자 한다.

I-2. 연구 범위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르 꼬르뷔지에의 건축 이론을 가장 잘 증명해 줄 수 있는 1920년대에서 1930년대에 지어진 3개의 빌라 - 빌라 라 호슈제네헤, 빌라 테라스, 빌라 사브와 - 를 연구 대상으로 하여 이들의 내부 공간을 분석, 해석하고자 한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다음의 점들에 의문을 제기한다. 만약 퓨리즘의 추상적인 의도가 르 꼬르뷔지에 건축의 출발점으로 제기되었다면, 이들이 어떻게 빌라에 형성되었을까? 만약 르 꼬르뷔지에의 건축적 논리가 그의 작품에 적용되었다면, 이들이 어떻게 빌라 내부 공간에 전개되었을까?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는 내부 공간을 형성하는 요소들이 갖는 개념들, 그리고 이를 통하여 내부 공간에 어떠한 현상들이 나타나는지를 조사하고자 한다.

II. 내부 공간 구성 요소들의 근본적인 개념들

II-1. 기하학

퓨리스트들은 미적 감각의 가장 높은 수준을 기하학적인 질서로 간주하였고, 보편적인 절대성의 재현에 의해 고조된다고 하였다. 이것은 기본적인 구성요소들을 선택하고, 간단히 기하학적으로 배열함으로써, 관람자들에게 수학적 특성을 나타내 주고 있다. 퓨리스트들은 <감성과 이성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목적에 도달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감성의 연구에 기초를 두고 있으며, 기초적이고 일반적으로 불변한 감성으로부터, 이차적 반향인 개인적이고 문화적인 질서가 이룩된다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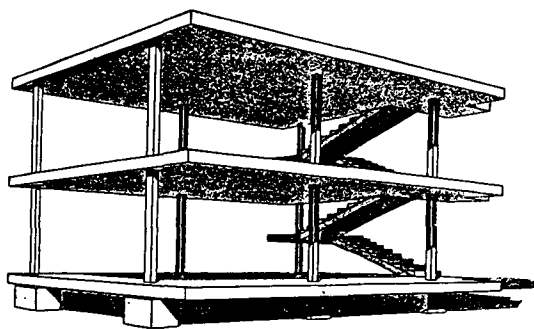
*정회원, 종합건축사무소 만우

본다. <과거의 위대한 작품들은 기본적인 요소들에 그 기초를 두고 있으며 이러한 것이 이들이 계속 각광을 받고 있는 이유이다>¹⁾ 라고 푸리스트들은 언급한다. 또한, 조형적인 만족은 기하학적 시스템으로부터 출발한다고 주장하고, 기하학으로부터 공간의 정리와 기본적인 요소들의 형성이 이루어진다고 본다. <입방체, 원추, 구형, 원기둥들은 빛이 잘 드러나는 기본적인 중요한 형태이고, 이들 형태는 우리들에게 선명하게 지각되고 그리고, 추각될 수 있고 또한, 모호함이 없으므로, 가장 좋은 형태이다.>²⁾ 기하학적 순수 개념은 도덕적 정확함과 정신적 만족 그리고, 절대성의 사고가 반영된 것으로, 이 시대 르 꼬르뷔지에의 작품은 새로운 활력과, 섬세함을 지닌 이러한 태도를 잘 반영해 주고 있다. 르 꼬르뷔지에의 빌라들은 형태적 측면에서 공간에 기하학적 다양한 요소들이 자유롭게 배치되어 있는 추상적 입방체처럼 보인다.

II-2. 경제

공간 구성 요소들의 선택에 관한 르 꼬르뷔지에의 의도는 구성요소들이 상호 호환되어 동일시되는 의미를 나타내려 하였다. 여기에 경제의 개념이 도입될 수 있고, 푸리스트들은 경제성에 따라 생산된 오브제를 묘사하려고 이를 도입하였다: <최고의 효율, 최고의 저항성, 최고의 용량, 즉 최고의 경제성. 여기서 경제는 일반적인 선택의 법칙이고, 오브제의 중요성은 특별한 디테일에서 보다는 전체의 표현에서 찾을 수 있다. 푸리즘이라는 기사에서 르 꼬르뷔지에에 건축은 가장 높은 수준인 지적인 상태를 강하게 인도하는 예술이다 라고 하며, <원인은 모든 것은 경제와 질서의 원리에 의해서 표현되기 때문이다>³⁾ 라고 언급한다. 푸리즘은 경제법칙들과의 대결에서 출발하였고, 마찬가지로 르 꼬르뷔지에에 주위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들과 산업 생산에 의한 오브제를 조화시키려 하였다. 이러한 의미에서 도미노 시스템(Domino System)은 르 꼬르뷔지에에 빌라들에서 공간의 구성요소 설치를 위한 출발점으로 보여진다.

도미노 시스템은: <구조의 시스템은 집의 기능으로부터 완전히 독립적이다. 구조는 단지 바닥과 계단만을 가진다. 이는 규격화된 요소들로 되어 있고, 이들 요소들은 서로 조화될 수 있으며, 이는 집을 연속해서 지을 경우 많은 다양성을 가능하게 해 준다.>⁴⁾ 이 모든 전개에 있어서, 경제라는 불변하는 표현들이 그들의 형성 과정과 외형에 반영되며, 구성요소들의 특징적이고 불변하는 방향성을 더욱 확실히 하기



(fig.1) 도미노 시스템
출처: Le Corbusier, Oeuvre Complète 1910-1929, Editions Girsberger, 19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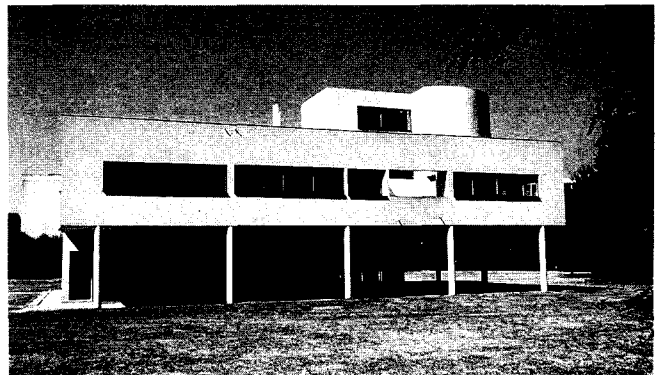
- 1) A. Ozenfant and Ch. E. Jeanneret (Le Corbusier), "Le Purisme", L'Esprit nouveau, n°4, January, 1921, p.374.
- 2) Le Corbusier, Vers une architecture, Crès et Cie, 1923, p.16.
- 3) ibid. p.370.
- 4) Le Corbusier, Oeuvre complète 1910-1929, Editions Girsberger, 1929, p.23.

위하여 도입된다. 내부의 요소들은 단순한 모습을 나타내고, 단순함은 모든 장식적인 요소가 배제된 경제의 원리에 의해 나타난다.

II-3. 새로운 건축의 5가지 요소

도미노 시스템을 통하여, 르 꼬르뷔지에에는 벌써 그의 유명한 <새로운 건축에서의 5가지 요소>를 부분적으로 발표하였다: 1. 필로티 2. 옥상 정원 3. 자유로운 평면 4. 수평의 창 5. 자유로운 외관.

내부 공간에 있어서는 이들 중에 3가지가 매우 구체화되어 나타난다: 자유로운 평면, 자유로운 외관, 수평의 창. <자유로운 평면>은 단지 기둥만이 지지의 역할을 하여, 내부 공간에 많은 자유로움을 주며, 이는 완전히 융통성 있는 요소들의 집합으로 나타날 수 있고, 이러한 요소들은 자유롭게 내부에 배치되게 된다. 이 공간에 있어서, 거주자는 의도하는 대로 내부 설비를 할 수 있다. 자유로운 평면은 외벽이 구조적 시스템으로부터 독립적이 되도록 하고, 여기서 <자유로운 외관>이 전개된다. 이러한 점들로 미루어 르 꼬르뷔지에에의 진정한 목적은 공간의 구성요소들을 독립시키고, 추상화시키려는 데 있다고 하겠다. 이 시대의 건축물들에서 이러한 자유로움의 원리는 르 꼬르뷔지에에의 예술가적 자유로움의 추구에 따른 것이다 하겠다. <수평의 창>도 같은 논리를 나타낸다. 수평의 창은 개념적으로 훨씬 묘사적이고 다른 벽들에 비해서 이러한 창을 가진 벽들이 구조에 더 독립성을 가져다줌을 나타낸다. 르 꼬르뷔지에에는 내부 공간의 밝기에 있어서도 다른 창들에 비하여 수평 창이 효율적임을 나타내었다: <수직으로 된 창과 같은 면적의 수평 창은 더욱 효율적인데, 이는 수평 창이 옆의 벽면들까지 밝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⁵⁾ 빌라 사브와에서, 이층은 네 벽면이 수평 창으로 되어 있어서 광선과 공기가 사방에서 들어올 수 있고, 주위 경관과의 직접적인 접촉은 이들 창들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내부에는 다른 건축적 요소가 없다. 광선과 벽들은 내부 공간을 새롭게 하고, 바닥은 수평의 벽이다. 밝은 벽면을 만든다는 것은, 내



(fig.3) 빌라 사브와 내부

- 5) Le Corbusier, Almanach d'architecture modern, Crès et Cie, 1926, p.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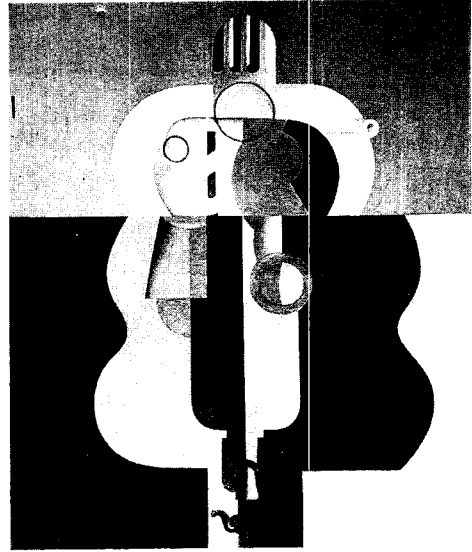
부에 건축적 구성요소를 만든다는 것이다).⁶⁾ 이러한 묘사들을 통해서, 르 꼬르뷔지에의 구성요소들에 관한 근본적 개념은 기본적 구성요소들의 기하학적 형태의 연구이고, 그의 건축적 논리에 기인하는 질서와 경제의 법칙에 따르는 구성요소들을 선택하는 것이다.

III. 내부 공간에 나타난 현상

III-1. 투명성

르 꼬르뷔지에의 퓨리스트시대 그림에서 공간은 극적으로 압축되어 나타난다. 이러한 압축된 공간은 서로 평행하거나, 그 평면 자체에 있어서 평행한 이차원적인 평면들의 겹침에 의해 나타난다. 투명성이라는 단어는 공간 형성의 이러한 형태를 특정 짓기 위하여 사용되었고, 이를 통하여 객관적인 그들 실제의 형태를 추상화하려 하였다. 이러한 투명성의 경향은 큐비즘의 건축적 공간의 구성으로부터 나타나고, 이는 이 시대 건축에 점점 더 강조되어 나타난다.

〈투명성〉, 〈겹침〉, 〈동시성〉 등의 단어는 현대건축 용어에서 동의어로서 자주 사용되었다. 조지 켄스(Gyorgy Kepes)에 의하면 투명성의 개념은 〈만약 우리가 두개나 여러 개의 물체가 겹쳐짐을 본다면, 이것들의 각각은 공통적으로 겹치는 부분을 갖게 될 것이고, 공간적 차원에서 서로 대립되는 현상을 보게 될 것이다. 이러한 대립 현상을 해결하기 위하여 새로운 시각적 질의 출현을 인정해야 하고, 그 형태는 투명성에 기인한다. 이 투명성은 서로 서로를 파괴하지 않고, 겹쳐질 수 있으며, 서로 다른 공간에서의 상태를 동시에 인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⁷⁾ 이러한 정의에 의해서, 개체의 물질적 특질과는 거리가 먼 투명성의 개념은 명백하게 되지는 않고 아주 모호한 상태로 된다. 이는 무의미한 단순성에서 의미 있는 복잡성으로 전달된다. 만약 우리가 르 꼬르뷔지에의 빌라들을 관찰해 본다면, 구성요소들이 부분적으로는 은폐되어 있고, 부분적으로는 노출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모호리 나기(Moholy Nagy)에 의하면, 이러한 투명성은 〈현상적 혹은 시각적 투명성〉이고, 이는 구성의 본질적인 질에서 유래되고, 다른 공간적 상황의 동시적인 인식의 결과로 볼 수 있다. 사전적 정의에 의하면, 개체가 투명한 상태로 됨은 물질적인 조건이고, 이러한 투명성은 개체의 고유한 특질로부터 나타난다고 본다. 모호리 나기는 이를 〈실제적인 혹은 사전적인 투명성〉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투명성은 오브제에 불안정하고 유동적인 형상을 가져왔다. 내부와 외부에 투명성으로 인한 상호 침투는 르 꼬르뷔지에의 공간에 명백하게 나타나며, 그는 빌라에서 유리를 사용함으로써 사전적인 투명성을 표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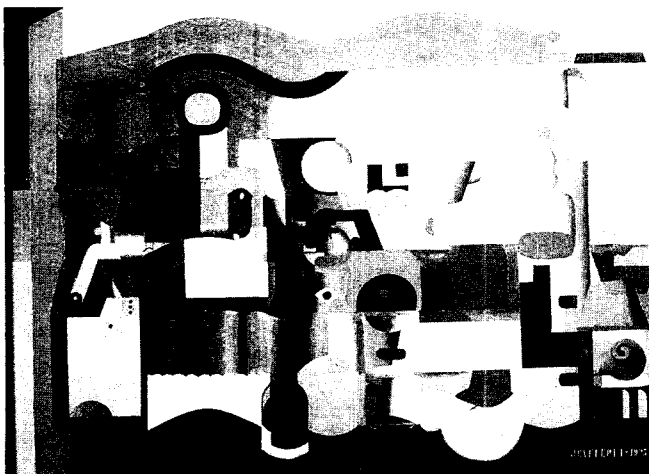


〈fig.5〉 정물-시폰, 19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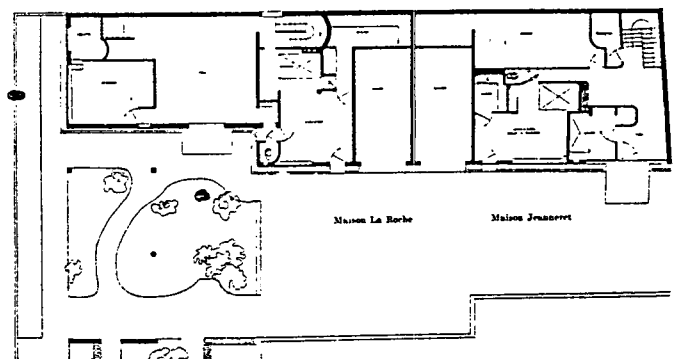
하였다. 퓨리스트 그림에서 이러한 문자상의 투명성은 투명한 유리 오브제에 의해서 강조되어지고, 르 꼬르뷔지에는 오브제의 불변하는 투명성의 특징을 묘사하였다. 우리는 여기서 르 꼬르뷔지에 있어 그림은 그의 건축적 사고의 전개를 위하여 실험의 장으로 간주되었음을 알 수 있다.

빌라 라 호슈제네헤 (La Roche-Jeanneret) 에서, 두 종류의 투명성이 그들의 건축적 표현으로 나타난다. 문자적 투명성으로는, 입구의 큰 유리창은 사람이 내부에서 외부를 보았을 때 벽의 연속성을 느낄 수 있게 하였다. 현상적 투명성은 같은 입구의 홀에서, 통로를 내기 위하여 시도된 다양하게 열린 공간을 통하여서, 평행하는 벽면들의 연속을 보게 하였다. 삼층의 라호슈의 방문에서나, 이층의 식당에서, 문이 부착되어 있는 평면, 홀의 다른 끝에 있는 복도의 채색된 벽, 뒷테라스의 내부 벽, 그리고 끝의 벽이 나타난다. 튜브로 된 난간, 삼층 복도의 길이는 이차원적 평면을 나타내고, 그 안에서 난간은 시선을 집중시키며 테두리를 형성하고 있다. 우리는 비록 평면의 제한된 면에서나마 현상적 투명함의 경향을 볼 수가 있다. 만약 삼층의 도서관에서 아래층의 입구를 본다면, 공간의 수평적 층을 볼 수가 있고, 수평적 구성에서 이들 평면의 거리와 길이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상자 모양으로 돌출된 발코니의 왼쪽으로는 계단이 있으며, 창 앞으로 나 있는 통로와 함께 이들은 조화를 이룬다. 비록 각 평면은 미완성적이거나 단편적이긴 하지만, 이들 평행하는 평면으로 공간이 구성되고, 평면에 내포되는 모든 것은 내부 공간의 수평적, 수직적 층의 결과이다. 이러한 공간적 설명을 통하여, 현상적 투명성은 공간 구성의 결과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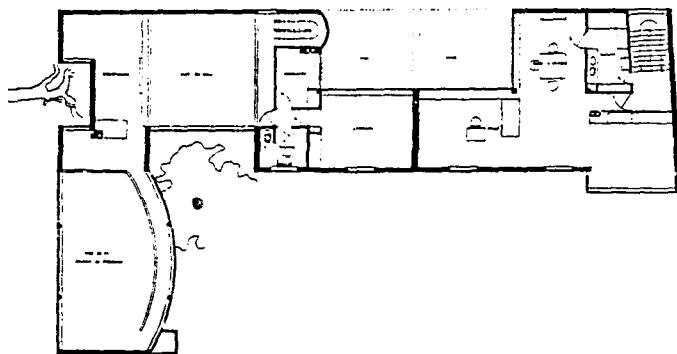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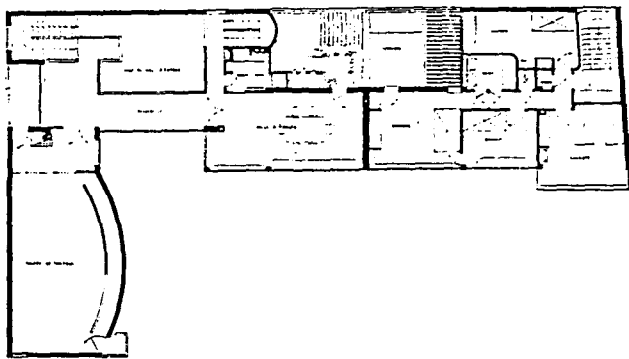
빌라 테라스(Terrasses)에서, 우리는 유리로 된 벽을 통하여 쳐다본다는 감각을 느낄 수 있고, 빌라의 내부와 외부를 동시에 볼 수 있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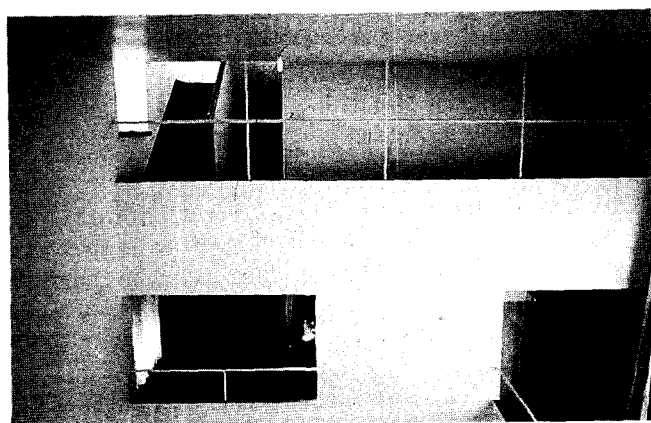
〈fig.4〉 정물-새로운 정신의 집, 1921



6) Le Corbusier, Vers une architecture, p.150.
7) G. Kepes, Language of vision, 1944, p.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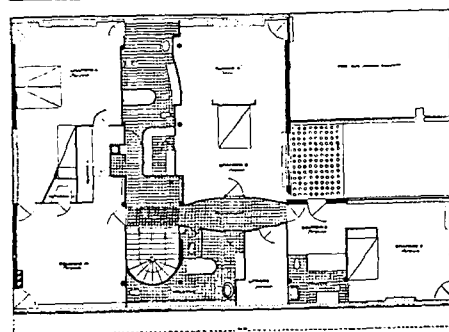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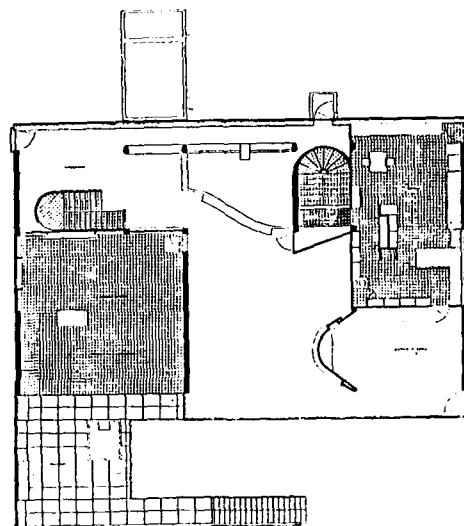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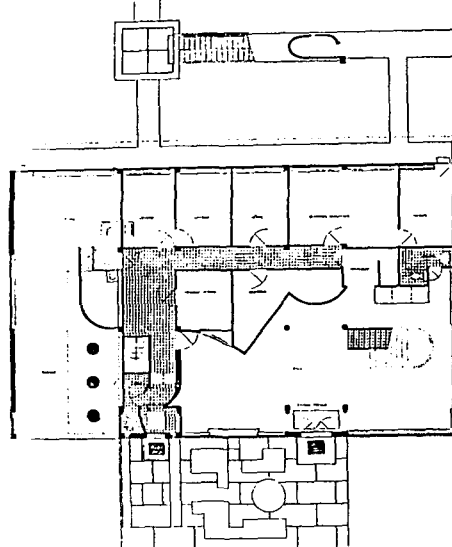


〈fig.6,7,8〉 빌라 라 호슈제네헤 1, 2, 3 층 평면도
출처: Le Corbusier, Oeuvre complète 1910-1929, Editions Girsberger, 1929.



〈fig.9,10〉 빌라 라 호슈제네헤 홀
출처: Le Corbusier, Oeuvre Complète 1910-1929, Editions Girsberger, 1929.

나, 우리는 더 이상 르 꼬르뷔지에의 강한 정열을 표현할 수 없다. 일층에서는 유리로 된 외벽에 평행하여, 좁은 턱이 있고, 독립된 벽들, 필로티, 문 등이 있는 평면이 펼쳐지는데, 이 평면은 형태적 확실함보다는 개념적인 투명성의 정당성을 나타내고 있음을 부인할 수가 없다. 이층의 공간적인 구조는 우선 보여지는 것 보다 더 복잡하다. 튀어나온 벽면의 가장자리선, 계단, 식당의 측면, 도서관, 빈 공간 등의 요소는 외관에 의해서 제시되는 평면의 층 지워지는 연속성을 형성한다. 사실, 투명성에 관한 르 꼬르뷔지에의 개념은, 조지 킵스의 〈서로서로를 파괴하지 않고 겹쳐지는 것〉에 유사하다. 우리는 이러한 투명성의 경향을 건축적 개념인 자유로운 평면, 수평의 창 등과 같이 그의 퓨리



〈fig.11,12,13〉 빌라 테라스 1, 2, 3 층
출처: Le Corbusier, Oeuvre Complète 1910-1929, Editions Girsberger, 1929.

스트 그램에서부터 전개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III-2. 대비

대비는, 르 꼬르뷔지에 건축의 출발점으로, 가장 보편적인 형상중의 하나이다. 외부로부터, 빌라 사브와(Savoye)는 사각형을 곡선진 볼륨에 대조시켰고, 빌라 라 호슈제네레(La Roche-Jeanerret)는 사각의 볼륨을 길게 늘어진 곡선에 대비시켰다. 그의 푸리스트 그림에서, 균형은 수평과 수직, 사각형과 곡선, 평면 앞뒤의 대비를 가져오는 구성 요소들의 조화에 의해서 얻어진다. 조화는 3차원으로 표현되고, 이 조화의 표현 방법은 르 꼬르뷔지에 의해서 건축적으로 사용된 방법과 유사하다. <사선은 수평선의 정적인 면에 반대되는 동적인 속성이 있다. 그래서 직각은 영원함의 상징이고, 사선은 불안정, 일시성의 상징이다. 결국은 직각이 있고, 사각의 미완성이 있다. 사선은 대상에 정지상태를 제거하고, 불안정의 표현적인 역동감을 주고, 아직 완결되지 않은 사고의 변화를 나타낸다.>⁸⁾ 이러한 대비를 통하여, 르 꼬르뷔지에는 그의 그림에 역동감과 변화를 주려고 하였다. 르 꼬르뷔지에의 모든 건축적 단어는 활력을 주기 위해서 대비되는 요소들을 동시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특히, 르 꼬르뷔지에 작품에 있어, 복도는 특별한 의미를 가지며, 외관의 정적인 사각형과 대조를 이루는 연속의 의미와 역동감을 가진 요소가 된다. 빌라 사브와(Savoye)에서, 바닥 수평면의 중심에 비스듬한 계단과 나선형 계단이 수직으로 위치해 있으며, 이들은 공간의 중요한 구성 요소들이고, 형태에 있어 대비가 된다. 난간의 비스듬한 선은 직각의 구성을 극적으로 만들어주고, 이것은 나선형 계단의 3개의 참으로 필로티 아래 지하 창고까지 연결되어 있다. 이 나선형은 수직으로 되어 있고, 수평적 구성에 자유롭게 놓여진다. 계단의 수직 볼륨과 수평의 창의 대조, 즉, 수직과 수평의 대조를 르 꼬르뷔지에는 예술의 근본중의 하나로 간주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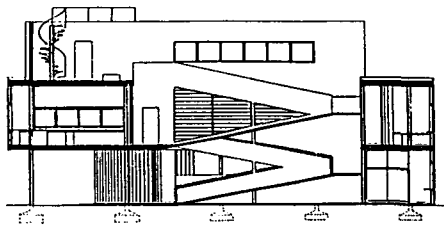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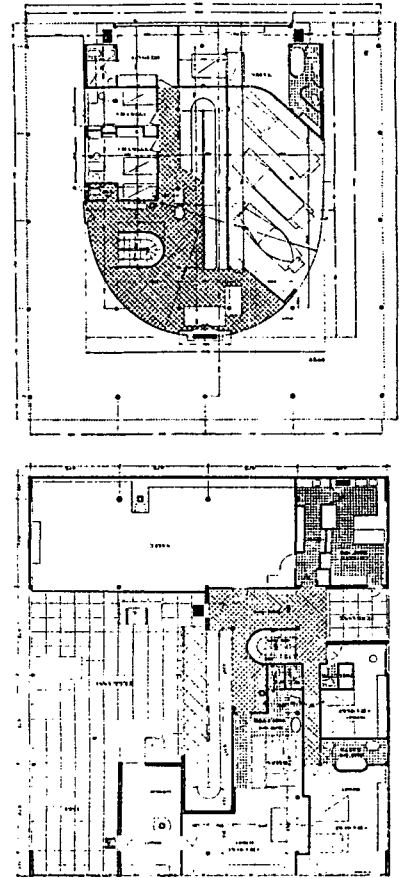


fig. 14, 빌라 사브와 단면도

출처 : Le Corbusier, Oeuvre Complète 1910-1929, Editions Gir-berger, 1929

빌라 테라스(Terrasses)에서, <내부에서, 평면은 자유롭고, 각층은 완전히 독립적인 위치를 가지고, 기능에 따라 엄밀하게 비례적으로 구성되어있다. 풍요로움의 인상은 화려한 재료들에 의해 표현되는 것이 아니고, 단지 내부 구성요소의 위치와 비율에 의해 형성된다.>⁹⁾ 이 빌라에 있어, 르 꼬르뷔지에는 5m에서 2m 50cm의 거리에 놓여진 기둥들에서 2:1:2:1:2의 리듬을 나타내며, 이들 조절자에 의하여 위치 선정의 공간적 극적 상황을 나타내려 하였다. 두 측면 대칭의 이 경향은 중재되는 구성 요소들의 비대칭에 의해서 더욱 강조되어졌다. 일층에, 부각되는 필로티들은 계단을 향해서 운동의 축을 만들며, 이 공간적 움직임은 곡선과 사선의 벽이 생긴 결과로 볼 수 있다. 이층에서, 중앙 부분에 위치한 계단참의 사선의 칸막이, 식당의 곡선진 벽과 선반은 결국 거실을 형성한다. 삼층에서, 곡면의 벽은 욕실을 방 B로부터 분리하고, 의상실의 사선 칸막이는 방 A와 안방 A 사이에



<fig.15,16> 빌라 사브와 1, 2층 평면도

출처 : Le Corbusier, Oeuvre Complète 1910-1929, Editions Gir-berger, 1929.

역동적인 요소로서 놓여있고, 계단에서 방 C로 연결되는 복도는 곡선에 의해서 강조된다. 복잡하고 굽이치는 평면에서, 이 복도는 구성의 기본이 되는 2:1:2:1:2의 리듬을 반복하는 안정된 요소로서 작용한다.

만약 우리가 이 두 빌라, 빌라 사브와와 빌라 테라스에서 형태와 위치에 있어서 대비의 현상을 본다면, 내부공간에서 색의 대비도 볼 수 있다. 비록 르 꼬르뷔지가 <변치 않는 진정한 조형적 작품에서는, 형태는 우선적이고, 다른 것은 이에 종속되어야 한다. 모든 것은 건축적 형상을 형성하는데 일치하여야 한다.>¹⁰⁾ 고 말했으나, 우리는 몇 가지 새로운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색채는 형태에 종속되어진다는 것이다. 빌라들의 내부공간을 통해서 색채에 관한 작가의 관심을 부인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내부벽들은 흰색으로 되고, 색채와 흰색, 혹은 색채 그 자체 사이의 대비를 나타내며, 색채는 제한된 범위에 놓여진다. <우리는 우리를 방해하는 벽들을 감추려고 색을 칠할 것이고, 다색상은 평면과 단면만큼 건축의 강력한 방법이다. 이보다 더 다색상은 평면과 단면 같은 건물의 구성요소이다. 건축적 다색상은 구성요소들의 공간적 이해를 완성하기 위하여 도입되었고, 르 꼬르뷔지에는 주어진 형태에 공간적 역동감을 주기를 원하였다. 그는 빌라 라호슈의 내부에 채색된 면을 도입하였다. <색채의 특별한 반응에 기본을 둔, 다색상의 첫째 시도는, 건축적 위장을 허용하고, 어떤 볼륨의 확장이나 반대로 그들의 삭제를 가져왔다. 집의 내부는 회계 되어야 하나, 이 흰색이 돋보이려면, 잘 조절된 다색상이 있어야 한다.>¹¹⁾ 빌라 라호슈

8) A. Ozenfant and Ch. E. Jeanneret, "L'angle droit", L'Esprit nouveau, n°18, novembre, 1923.

9) Le Corbusier, Oeuvre Complète 1910-1929, pp. 140-144.

10) A. Ozenfant and Ch. E. Jeanneret, "Le Purisme", L'Esprit nouveau, p.384.

11) Le Corbusier, Oeuvre Complète 1910-1929, p.60.

에서, 입구 홀을 향한 모든 표면들은 흰색으로 칠해졌다. 복도 옆의 벽들은 바닥에서 천장까지 열은 청색으로 칠해졌고, 트여진 돌출부들, 창외 가장자리 그리고 주추 등은 짙은 갈색으로 칠해졌다. 바닥의 마감으로, 통행 공간의 대부분을 검은색 작은 격자무늬, 서비스 공간에서는 흰색, 다른 부위는 일반적으로 열은 황색, 난간과 굴뚝은 강조를 위해서 흙색을 사용하였다. 색상의 결정은 르 꼬르뷔지에 그림에서, 열은 황색, 적색, 흙색, 흰색, 검정색, 푸른색, 그리고 혼합에 의한 다양한 색상들로 형성된 큰 색 단계를 결정지을 수 있다. 이 단계에 있어서, 원색과 그들에서 파생된 것을 혼합하는 색들은 서로 연결되고, 〈색채는 근본적으로 건설적이고, 이는 볼륨에서 채색되기를 원하는 것에 쓰인다〉.¹² 내부에 채색을 하고 그들의 주위와 대조를 이루는 색단계를 도입함으로써, 르 꼬르뷔지에는 형태적으로 가장 큰 추상에 도달하려 하였다.

IV. 결론

우리는 이 연구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할 수 있었다. 1920년에서 1930년대 초의 르 꼬르뷔지에 빌라에서, 그의 건축적 추구는 건축적, 퓨리스트적인 개념들의 실현이다. 형태적 구성원리들의 조화와 종합에 의한 일치는, 결국 하나의 고정적 규율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의도하는 바와 방법을 동일시하며, 고정된 절대성과 주관적 인식의 종합에 의한 미의 실현을 추구하였고, 이를 통해서 건축은 순수한 정신적인 창조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건축은 큐비즘 이후로 퇴색된 표현방법을 사용하지 않게 하는 자유와 용기를 회화에서 발견했다고 할 수 있다. 이로서, 르 꼬르뷔지에는 습관적인 표현에서 자유로워지고 건축가의 태도를 변경시키는 주요한 개념을 도입하였다. 그러나, 흔히들 르 꼬르뷔지에는 어떠한 것도 창조하지 않고, 단지 변형만 시키고, 그의 작품은 아이디어의 모방이라고들 말한다. 콜린 로(Colin Rowe)에 의하면, 〈빌라 테라스는 1560년의 빌라 말꼴탕타(Malcontenta)에 연결되어 있고, 빌라 사브와는 팔라디오(Palladio)의 빌라 호통다(Rotonda)에 비교되어야 한다〉. 쿠트 포스터(Kurt Forster)에 의하면, 〈빌라 라호슈는 폼페이 포에트 트라지(Po tes Tragiques)의 집에 병행한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사고는 분리될 수 없을 정도로 그의 놀랄만한 창의성과 그 작품의 효율성에 연결되어 있는데, 이는 단지 그 복사가 아니고, 재해석을 통한 하나의 창조로 볼 수 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르네상스도 골동품의 복사라고도 말할 수 있는가?

참고문헌

1. Alazard J. and Hebert U.-P., De la fenêtre au pan de verre dans l'oeuvre de Le Corbusier, Dunod, Paris, 1961.
2. Baker G. H., Le Corbusier an analysis to form, Van Nostrand Reinhold, New Orleans, 1984.
3. Benton T., Les villas de Le Corbusier 1920-1930, Philippe Sers, Paris, 1984.
4. Besset M., Qui était Le Corbusier?, Skira, Genève, 1968.
5. Chaber T. C., "Le Corbusier : le peintre en marge de l'architecture", Le Progres, Lyon, may, 1982.
6. Curtis W. J. R., Le Corbusier idea and forms, Phaidon, London, 1985.
7. Delorme J.-C., Les villas d'artistes Paris, Les ditions de Paris, 1987.
8. Ducros F., Journal d'Histoire de l'architecture, Univ. de Grenoble, 1988.
9. Frampton K., L'Architecture modern- Une histoire critique, Philippe Sers, Paris, 1985.
10. Giedion S., "La maison Savoye Poissy 1928-1930", Cahier d'Art, n°4, 1930.
11. Guiton J., Le Corbusier, Moniteur, Paris, 1982.
12. Jean P. Le corbusier lui-même, Edition Rousseau, Genève, 1971.
13. Jullian R., Histoire de l'architecture moderne en France, Philippe sers, Paris, 1984.
14. Le Corbusier, Almanach d'architecture moderne, Crès et Cie, Paris, 1923.
15. - Vers une architecture, Crès et Cie, Paris, 1923.
16. - Oeuvre complète 1910-1929, Editions Girsberger, Zurich, 1929.
17. - Oeuvre complète 1929-1934, Editions Girsberger, Zurich, 1934.
18. Monnier G., Le Corbuseer Qui suis-je?, La Manufacture, Lyon, 1986.
19. Moon S. V., Le Corbusier Elements of a synthesis, Mit Press, Cambridge, Mass., London, 1979.
20. Ozenfant A. and Jeanneret Ch. E. (Le Corbusier), Après Le Cubisme, Editions des Commentaires, Paris, 1918.
21. - "Le Purisme", L'Esprit nouveau, n°4, january, 1921.
22. - "L'angle droit", L'Esprit nouveau, n°18, november, 1923.
23. Ragon M., Le temps de Le Corbusier, Herme, Paris, 1987.
24. Ragot G. and Dion M., Le Corbusier en France, Electa Moniteur, Paris, 1987.
25. Colin R., The Mathematics of the ideal villa and other essays, MIT Press, Cambridge, Mass., London, 1976.

〈접수 : 1996. 2. 29〉

12) A. Ozenfant and Ch. E. Jeanneret, "Le Purisme", L'Esprit nouveau, pp. 382-383.